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오른쪽)이 19일 오전 송광사 삼일암에서 일본 조동종 관장 이타하시 고슈(왼쪽)스님 일행과 법담을 나누고 있다.

선원에서는 수선남자들의 하얀거수행이, 강원에서는 학인들의 간경삼매가, 사자루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여름수련대회가 열리며 가는 조계산 송광사에 손님이 찾아왔다.

일본 최대 종파인 조동종 관장(종정에 해당) 이타하시 고슈(板橋興宗)스님과 전 조동종 청년승가회 회장 아라키 세이쇼(荒田清尚)스님, 발행 10만부를 자랑하는 계간 <조동종

아한 자제로 절을 울리며 수행자의 곳곳함을 내보였다. 아침 공양 이후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이 이타하시 고슈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잡지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잠을 청하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 "한국불교 수행전통 부럽습니다"

## 日 이타하시 고슈 조동종관장 일행 송광사 사찰체험

랜 친구를 만난 듯 안부를 물었고 두 고승의 눈빛은 따뜻하기만 했다.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3년 전 백암사를 방문했을 때 가부좌를 틀고 참선 삼매에 빠져 있는 한국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는 현재 선종계통의 종파에서

체계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조계종 승가의 수행을 체험시키기 위해 송광사 방문을 주선했다. 고슈 스님은 "일본 강점기 이후 한국불교가 일본 불교화 되고 세속화 되어 수행체계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조계종이 이렇게 수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불교는 남쪽당을 중심으로 한 당파제도(조상의 시신을 화장해 사찰에 안치하고 자식들은 대대로 그 사찰을 완찰로 하는 일종의 평생신도 개념)을 통한 재정으로 사찰을 운영하는데 송광사 같은 큰 사찰은 어떻게 운영되니까?"

"한국스님들은 대부분 무소유를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직접 채소밭을 일구기도 하지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불관함을 못 느낄 정도입니다."

보성 스님은 또 "10년 동안 조동종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정비구 30명만 배출한다면 앞으로 일본 불교에 수행체계가 바로 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이쇼 스님의 질문이 이어졌다. "9 11 테러 이후 세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불교는 어떤 입장으로 대처해야 하나?"

"열심히 수행진행하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계승해 인류 사회에 삶의 지표를 제시할 때 불교가 비로소 제

### 새벽예불 동참...방장 보성스님과 법담 보림·쌍봉사 참배, 강원스님과 좌담도

### "10년간 청정비구 30명만 배출해도 일본불교 수행체계 바로서게 될 것"

는 안거 등 수행체계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님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소장과 스님들에게 안거 등 부처님 당시의 수행

부럽기 그지없다"며 한국불교의 수행풍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두 나라 스님들이 차 향기 은은한 삼일암방장스님 처소에서 마주 앉았다. 아라키 세이쇼 스님이 보성스님에게 질문했다.

### 선교 겸비한 선사

일본 조동종 관장 이타하시 고슈스님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1927년 공현성에서 출생하여 동북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승사건문당 당장을 역임했고 현재 일본 최대 종단인 조동종 관장에 재직중이다. 관장이란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정에 해당된다.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불교수상> 등 많은 저술을 통해 선교를 겸비한 선사로 추앙받고 있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조동종 스님들은 사시 예불, 참선 등 한국 스님들의 수행을 체험하고 보림사와 쌍봉사를 참배했다. 저녁에는 강원 스님들과 좌담회도 가졌다. 20일에는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을 순례하고 귀국했다.

순천 송광사=김두식 기자

## 고속철 금정산통과 반대 금물살

### 안상영 부산시장 말바꾸기 항의, "환경장관 고소 불사"

#### 시민토론회·범불교도 부산결의대회 개최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 노선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태도가 경부고속철 조기완공으로 바뀌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운동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해운 내원사 산감 지음스님은 15일부터 부산시청 정문앞에서 안상영 시장의 말바꾸기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집회를 열고 안상영시장의 조기완공 입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음스님은 공사장지가쳐본 신청을 내거나 환경부 장관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정산 고속철 관동반대 범시민대책위'에서는 26일 오후 2시 범여사 경의주차장에서 '금정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 결의대회'를 열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원사의 비구니 스님 50여명은 24일 부산시청앞에서 고속철 노선 변경을 위한 3보1배 정진으로 부산시의 고속철의 공사강행에 맞서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내원사 산감 지음스님이 15일부터 부산시청 정문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은 솔리나 수녀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신은 본게는 인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히딩크감독 등 한국 대표선수단 21명의 사인이 새겨진 패물탱.

### 월드컵 태극전사 사인 새긴 만다라 패물탱 통도사 보존

월드컵 신화를 창조해낸 태극전사 21명의 사인이 새겨진 만다라 패물탱이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된다.

현, 이은재, 최진철, 박지성, 김남일 등 21명의 대표선수단이 서명한 불상도 포함되어 2002명의 동침이 완료된 배접과 점안의식을 거쳐,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상징물로 역사에 남게 된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이 만다라 패물은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2002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명이 직접 채색을 하고, 완성된 후에는 자신이 그린 불상 옆에 이름과 국적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2002볼중 500볼이 완성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2002명이 직접 채색을 하고, 완성된 후에는 자신이 그린 불상 옆에 이름과 국적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히딩크감독과 박항서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텝들과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안정환, 김태영, 설기

현, 이은재, 최진철, 박지성, 김남일 등 21명의 대표선수단이 서명한 불상도 포함되어 2002명의 동침이 완료된 배접과 점안의식을 거쳐,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상징물로 역사에 남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 목탁소리

김원우 (취재1부 차장)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홀로 청빈의 삶을 살고 있는 법정(法頂, 김상사 회주)스님이 15일 북한산 울대리 '철마선원'을 찾았다.

스님은 철마선원에 도착하자마자 20여분간, 터널이 뚫릴 장소에 세워진 10m높이의 망루와 법당 그리고 마구 파헤쳐진 현장을 둘러본 뒤 "개발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사회에 던지는 '할'을 하고 강원도 토굴로 돌아갔다.

환경운동의 선구자인 노스님의 철마선원 방문은 분명 북한산 관동도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불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글은 많지 않다. 어른 환기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준비했던 이번 법정스님 철마선원 방문에 조계종 기행실이 불교언론을 떠돌았던 사실을 알고서다.

철마선원 수경스님으로부터 불교계와 일간지의 홍보를 위탁

### 조계종 기행실의 언론관

받은 조계종 기행실은 '교계언론까지 가면 복직시켜 법정스님이 그냥 가버릴 우려가 있어서'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불교계를 배제' 한다는 입장으로 일간지 출입기자들에게만 연락하여 현장으로 데려가는 이해 못할 일을 행했다.

그간 일반언론 어디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북한산 관동도로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불교계 기자는 수많은 불자를 대신해 보고 듣고 기록하기를 발원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 기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계언론을 통해 불교뉴스를 접하는 신심 있는 불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산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기사화 해온 불교언론을 배제 한 이유가 단순히 '교계언론은 매체 영향력이 없다'는 거라면 그렇게 단정짓는 근거가 뭘지, 조계종 총무원의 해명을 듣고 싶다.

##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자 (주)수신토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질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 차례씩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종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 꼭 확인하십시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제재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제재자 성광수씨의 사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0047

##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 강의 내용

- ① 타인최면유도
-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 ③ 원력최면
- ④ 전생 퇴행 최면
-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 문의처 : 051)806-8500, 051)817-6156
-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 법운 선생님의 약력

- 2001년 SBS 오기심천국 출연
- 2002년 KBS 'VJ 통영대'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이집트 특종뉴스 출연 (온영학)
- '98년 PSB 출생애 이집트 출연 (안상학)
- 대한 초능력학의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야미포 기공임원 회장
- '인' 심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동방 최면 전생 연구소